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장애학생 인권**

다름 을 넘어 **당●당●함**으로

김형수(장애대학생네트워크 대표)
2021. 2. 15(월)

우리가 영화 피터팬을 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후크 선장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애꾸눈에다 갈고리 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장애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천사를 닮았고,
순진 순수하며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진 장애인
그는 그런 착한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는 욕심 많고 잔인하고 악하다.
그는 그의 장애를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장애인이라 팔자타령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쁜 장애인이었다.
인간 승리를 하지도 않았고, 그를 보면 절대 도와 주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아무도 그를 장애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쁜 '선장' 뿐이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우리는 그렇게 나쁜 장애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다.

그 누가 우리 앞에서 감히 개성을 논하는가?
이제 다름을 넘어 당당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 하리라.

유니크하고 유일하다. 예술이다

아직 국민학교라고 했던 입구에는 오늘날의 보안관실과 같은 수위실이 있었다. 수위실 옆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그루가 있었다. 나무는 밑동같은 큰 돌의자도 두르고 있었다. 85년까지 이또범 선생님께서 근무하셨다. 그 곳에서 점심도 직접 지어 드시고 숙직도 하셨다. 느티나무는 그 곳의 하얀 벽과 운동장 경계를 만들고 그늘도 지으며 작은 비를 막아 주었다. 나는 매일같이 돌의자에 앉아 떨어지는 나뭇잎을, 읽은 책 속에 모으며 어머니 차 엔진 소리를 기다렸다.

교문을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운명처럼 나무 아래 기다리는 나를 발견해야 했다. 경사졌던 언덕길을 내려와 친구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옆 반 선생님들의 이른 퇴근 인사까지 받고 나서도 느티나무는 가버리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 차가 보이지 않아서 햇살도 사라지고 나뭇잎도 웃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크고 주름진 보조개가 신기했던 이또범 선생님께서 가끔 라면도 끓여 주고 따뜻한 수위실 뒤편에서 몸도 녹이게 해주셨다. 다른 아이들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다른 자동차들은 따로 운전하는 분들이 조용한 엔진 소리로 친구들을 태웠다. 교문으로 오는 모든 차들이 우리집 차 같았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우리집 차가 안 오면 이따금 그 차들이 데려다주었다. 이 사립 학교에 입학할 추첨하는 날에도 많은 아이들이 차를 타고 왔었고 이상하게 나와 함께 제비를 뽑았던 아이들 6명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돌아갔다. 늦게 나온 취학 통지서를 들고 다른 공립 학교를 가면 왜 미리 전화 주지 않았냐고 올 엄마가 야단을 맞기도 했다.

이 학교는 오히려 전화로 나를, 물어본 엄마를 뭐라고 했다. 자신들은 학생들을 골라서 받지 않는다면서 일단 오라고 했다. 내가 뽑은 막대마다 모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일학년 담임 선생님은 교과서에만 들던 나를 직접 만날 수 있어 무척 반갑다고 했다. 친구들이 너를 낯설어할 수도 있으니 많이 알려 주라고도 하셨다. 작은 차를 타는 나를 낯설어하는 다른 학부모들도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반갑게 나를 함함하시니 아무 말이 없었다.

학교 운동장 구름이 양떼처럼 하늘 들판을 달리다가 결국 날씨가 굶으면 1학년 3학년 담임이었던 김인선 선생님은 5시반까지 교실에서 함께 계셨다. 늘 받아쓰기 뺑점이었던 나에게 습자지와 국어책을 주시며 연습해 주셨다.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으라 하셨다. 하지만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을 키가 작은 내가 늦게 다녀오는 것은 별로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것은 어떻게든 혼자 해야 한다고 했다. 은밀한 거니까.

3학년 어느 날 선생님께서 주신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를 읽었다.
2학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잘 읽지도 못해 김인선 선생님께서 또 나에게 오셨다.
나는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느티나무 아래에서 소리 내어 읽었다.
어머니의 수동 메뉴얼 스틱 자동차를 기다리며 들려주었다.
책 속의 나무 이야기는 슬프고 내 곁에 나무는 사과를 주지는 않았지만 내 옆에서 내 언어를 들어 주었다.

5학년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었다. 조각가이며 사진사이셨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우리들 사진을 담아주셨다. 부산에 처음으로 금곡 스케이트장이 생겼다. 모두가 체험 학습을 가는데 이승희 선생님께서 한 시간 미리 오라 하셨다.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얼음판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일주일 뒤에 스케이트화도 없이 선수같이 얼음을 지치는 내 몸짓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주셨다. 매주 책읽기 숙제를 내주셨는데 어느 금요일에 ‘사랑의 학교’ (원제 : Cuore)를 나에게 읽으라 하셨다. 온갖 친구들의 고통과 고난, 불행을 이야기하는 책이었다. 세상에 저 머나먼 이탈리아에서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나와 같은 아이들도 있었다. 나도 Nelli 넬리였고 Crossi 크로시였다.
내게도 넬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반 아이들에게 호통쳐준 Garrone 가르로네와 같은 친구들도 있었다. 가르로네와 같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

고등학교 초임 미술 선생님은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활용하여 가장 특이한 것을 새롭게 만들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그림에 자신이 없어서 하얀 점토를 빚어서 제출했다.
최초로 학교 과제물에서 형을 이겼다. 최고점을 받았다.
나의 오른쪽을 도드라지게 빛은 하반신이였다.
내 몸을 빚어서 냈다. 선생님의 평가는 “유니크하고 유일하다. 예술이다.”

중학교는 동창들이 많이 진학했던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함께 갈 수 없었다.
너무 멀었다. 우리집에서 직선 거리로 2.1KM 떨어진 내성 중학교로 입학했다.
늘 걸어서 통학하긴 버거웠지만 한두 번은 기다리지 않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리였다. 중1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였다. 읽기,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적힌 과거 통지표를 보시고 많은 걱정을 하셨다. 더구나 첫 수업이 작문 수업이였다.
김혜정 선생님께서 교과서에 유명한 수필을 빌려 글짓기를 해보라 했다.

나는 도서관에서 책읽기를 알려준 4학년 때 친구 제민준을 사랑했다.
그가 소개한 거친 종이 얇은 40권의 코넬 도일 흠즈 책과 빨간색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소설을 사랑 했다. 하안색 ABE 문고 ‘초원의 집’ 을 읽고 또 읽어, 60쪽까지 무조건 읽기에서 형과 경쟁한 여름 방학을 좋아했다.

교실보다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을 더 짜릿하게 해준 겨울 독서교실을 좋아했다.

교실에서 화장실까지도 멀어서 모두들 냄새나고 느리다고 짝지하기를 꺼렸다.

물만으로도 수채화를 어른처럼 그렸던 5학년 3반 짝지 조민정, 단 한번도 나에게 뭐라한 적이 없었다. 참 고마웠다. 폐렴에 열이 40도를 넘나들어도 개근상이 깨지는 것이 싫었다. 고집스럽게 등교한 나를 오전 시간이 지나서야 조퇴시켜서 초등학교 유일하게 상을 받게 해준 4학년 담임 선생님을 좋아했다.

체육시간 멀뚱 멀뚱 교실에 남아 있었는데 너도 운동장에서 땀 흘리라며 뜻밖에 화를 냈던 2학년 정명륜 선생님을 좋아했다.

피천득 작품 ‘나의 사랑하는 생활’ 을 내 것으로 새롭게 쓰기로 발표했다.

선생님께서 내 첫작품을 전체 반 학생들에게 낭독하셨다. 칭찬하셨다. 글쓰는 것에 재능 있다 하셨다. 친구들 몇 몇은 박수를 쳤다. 생애 처음 받은 공개 칭찬과 박수였다. 그렇게 읽기 싫었던 국어책을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읽었다.

습자지(習字紙)일백장에 뭉개진 글씨가 오른손이 제대로 하는 유일한 작업이었다.

형이 다니는 동래고에 나의 첫 담임도 박임범 국어 선생님이셨다.

그는 처음에는 천하에 바보에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나에게 고백했다. 첫 월레고사에서 연속으로 국어를 만점 받았기 때문이었다.

교직생활에서 연속 국어 만점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교사로서 두려움을 직접 내게 말해준 교사는 그가 최초였다.

철판에 빨리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교사의 권위를 추락시킨다는 시대였다.

교생 실습조차 거부했었던 그 때, 원고지에 손글씨가 느린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의심하며 말리는 어른들도 많았다. 교사들도 세무공무원을 하라고 했다.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무대학은 그 해 3월부터 평균 남성 외에도 최초로 여성들에게도 입학할 허가를 했다. 95학년도 전까지는 국립 세무대학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입학할 허용한다는 제도를 만든 대학은 없었다. 대학 입학철만 되면 나같은 사람은 늘상 뉴스에 올랐다. 아예 76년까지는 대학은 직립 보행이 가능해야 입학할 허가를 했다. 엉거주춤 서있는 복도에서 친형 진학지도 국어샘은 연예인 강호동처럼 외쳐댔다. “니가 대학 갈때는 컴퓨터가 판서하고 글 다 쓸끼다 걱정말그라”

그분의 말투의 끝은 달려라 하니의 흥두개 선생 목소리 같았다.

병신, 애자, 찢찢 그리고 김형수.

facebook.com/eduable || gurnika@hanmail.net

“장애 자체는 오래 전부터 몸에 베어 있었으므로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에는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이 갑자기 심각한 문제로 바뀌어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가 변화면서 바뀌 말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쿠라모토 토모야키, 한 장애인이 청소년에게 묻는다 보통이 뭔데? 중에서」

글 제목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눈길 주기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먼저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여전히 이 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힘’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 그 알 수 없는 부담이 바로 타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현실일 것이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자신들 스스로는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 알 수 없는 부담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이 말들- 용어-은 때때로 종로에서, 실내 수영장에서, 시골 장터에서 늘 또 다른 이름처럼 불리는 사람들의 나에 대한 반응어(語) 들이다. 바로 나를 지칭하는 것 들이다. 나에 대한 형이나 동생, 아저씨란 호칭어보다 솔직히 이런 말들이 더 익숙하다. 나를 처음 보고 선배나, 후배라는 생각보다 ‘어 장애인이군’ 이런 이미지가 먼저 머릿속에 강하게 밀려와, 나의 나이와 지위로 나를 어떻게 부를 지를 고민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길을 느낀다면 비장애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장애인 당사자의 피해 의식일까? 아니면 나의 오해이자 단정일까? 과연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내 장애를 더 궁금해할까? 내 나이를 궁금해 할까? 내 이름을 더 궁금해 할까?

알몸이 보이는 목욕탕이나 해수욕장, 또는 어느 버스 칸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두려움에 떨며 내 주위를 떠나는 경험이 사라진 것은 불과 10년 전이었다. 나는 병을 옮기는 신체를 가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病身(병신)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사춘기도 되기 전에 구체적인 생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실제로 그 사람들의 반응대로 옴이라도 옮기는 전염체의 ‘병신’ 인줄 알았

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



그러나 한 때 저 용어들은 신문에서 아무 문제 없이 올랐던 호칭어였고 사람들 입으로 쉽게 벌어지는 말이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그 말을 듣는 누군가를 욕보이거나, 화나게 하거나, 피해의식이 생기게 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보다는 우월감을 얻어야 할 때 쓰는 비속어, 육두문자가 되었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구자’와 같은 말을 배운 어르신들이 나에게 하는 반응어들은 대부분 질 좋은 동정심이거나 거친 호기심이거나 그 단어밖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될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 ‘만종’ (An Evening Bell, 1970)이란 영화가 있다. 한국 영화중 최초로 수화가 비중있게 나오면서 농아인 연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둘 사이에 결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한 의사가 ‘장애가 유전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 영화가 수화를 사용하는 남녀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의미이외에도 그 시대의 장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잘 드러내고 있다.

미국 영화 -SuperHero Movie (2008) : 한국제목 잠자리맨-를 보면 유명한 장애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온갖 비속어를 내뱉으며 자기비하를 일삼아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패러디 장면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메디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장면이나 대사가 가끔 등장하는데 미국에 비해 훨씬 민감한 반응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미국 영화의 개봉 이후 호킹박사나 장애인 단체 등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했다는 소식은 찾을 수 없다. 왜 그럴까? 외국 경우 개그의 소재로 장애인이 등장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은 아마도 누가보더라도 장애인 당사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캐릭터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이면을 폭로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의 장애를 장애인 개인의 게으름이나 실수로 치부하고 그 자신의 장애가 인격으로 동일시 됨으로써 자학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어느 유명한 코메디언의 말처럼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걸 볼 때 함께 웃어 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 등에 낙인을 찍더라도 꿈은 꺾지 마라.

어릴 적에 주위 어른들은 나에게 늘 시계고치는 기술이나 배워서 시계방이나 차리란 격려 아닌 격려를 받고 자랐다. 난 그 말이 어찌나 듣기 싫었던지 길거리에 시계방조차 쳐다보기 싫었다.

어머니와 함께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대학에서 학생회관에 앉아 있을 때마다 자신의 종교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고 선교할 때마다 그동안 고통을 겪으며 병원을 다닌 것들을 그 사람들이 무시한 것이 불쾌했고 기적 운운하는 것도 나에게겐 모욕적이었다. 나의 장애를 내 인생에 멍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내 ‘장애’를 구원과 기적이 필요한 것으로 단정한 것이 더더욱 받아 드릴 수 없었다.

나에게 가장 민감했던 말은 어느 친했던 친구가 운동 얘기를 하다가 스쿼시라는 운동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보자 대뜸 ‘너에게 스쿼시는 불가능하잖아? 위험해’라고 말한 것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도, 육두문자도 아니었지만 철들고 나서 내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는 말이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장애를 규정해서 나를 애뜻하게 배려한다고 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 내 꿈을 공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은 그 친구가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이 잇을만하면 하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말들이 더 당사자들을 공분하게 만드는 이유가 공적이익이나 배려심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모욕을 배려심과 동정으로 은폐하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널리 퍼뜨리고 사회적으로 교육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명박의 장애인 낙태발언일 것이요, 일상적으로 그 영향력이 강한 것은 각 종교 설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 설교 시간에 하는 발언들일 것이다. 어느 종교에서는 장애는 기적과 구원의 대상이고 어느 종교에서는 죄이자 업이라고 말하는 사례가 그것일 것이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잘못 부르는 한센병은 현대에 와서 의학적으로는 단순 전염성 피부병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문둥이’란 단어는 그 어떤 모욕어나 차별어보다 그 힘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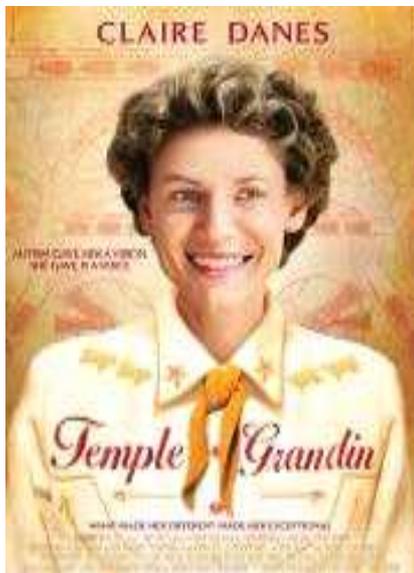
문둥병이란 호칭은 단지 당사자에 대한 차별을 넘어 아직까지도 자식들이 파혼까지 당할 수 있는 세대간 차별이나 전지구적인 모욕을 야기한다. 오죽했으면 지난 1월 일본의 유엔 친선 대사가 “폐기된 용어를 차별적 의미로 사용“ 개탄하면서 “문둥병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고 촉구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결의문까지 발표했을까?”

<이 한센병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사회화 시키는 가장 강한 무기 중 하나가 ‘영화 벤허’ 라고 난 확신한다. (궁금하신 분들은 DVD를 빌려 보시라.) >

단지 모범 답안 : 장애인이라고 다 같은 장애인이 아니다?

1) <http://www.ted.com/talks/view/lang/kor//id/773> 에서 그녀의 강의를 들어보라



90년대에 가장 진보적인 호칭어였던 ‘장애우’란 말이 지금은 장애인을 이르는 말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비대칭적이며 비굴한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자각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먼 미래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스스로를 바보라고 칭하신 것처럼 ‘애자’ 라는 말이나 ‘병신’ 이란 낱말들이 모욕어가 아닌 겸손어로 회자될 지도 모른다.

장애인을 별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나에게 패션쇼에 나온 연예인이나 받을 만한 눈길 세례를 보내고 벌정거리는 내 다리가 궁금해서만 쳐 보는 행위를 뭐라 할 수는 없다.

템플 그랜딘(Temple Grandin, 1947년)은, 보스턴 출신 미국의 동물학자이다. 비학 대적인 가축시설의 설계자이며, 콜로라도 주립대학 준교수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 좋은 지도자를 만난 덕분에 1960년대에는 뉴햄프셔 주 린지에 있는 기숙학교 햄프셔 컨트리 스쿨에 들어가 1970년에 프랭클린 피어스 컬리지에서 심리학 학사, 1975년에는 애리조나 주립대학 에서 동물학 석사, 1989년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 그녀의 이름을 딴 극 영화가 제작되어 2011년 1월 미국 LA서 열린 제17회 미국배우조합상(SAG)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름의 이유로 몸에 살이 찐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 당해본다면 복수심에 불타게 할 만한 강도를 가진 것이다. 나랑 같이 거리를 걷거나 등산을 가거나 데이트를 한번이라도 해본 비장애인들은 함께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리적인 편의시설이 없음도 아니요, 활동 보조도 아닌 나와 동행함으로써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고 고백했었다.

나는 그 시선을 30년 넘게 받으면서, 수용하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때로는 나보다 더 중증장애인을 나 스스로, 놀리고 쳐다보면서 견딜 수 있는 내공

과 보호막을 만들어 왔다.

그래도 결혼식장 들어설 때마다 둘러와 꽃히는 사람들의 시선과 장례식장에서 조문

하는 것에 대한 난감함을 처리하는 것에는 여전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말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놀리고 측은해하면서 자신의 건강함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기회를 주지 않고 외치고 싶었다. “네, 저 애자 맞아요. 장애인 맞다니까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지칭할 낱말을 정하고 내 입으로 말하기까지, 수많은 따돌림과 작은 폭력들 속에서 만들어진 수십 가지가 넘는 별명을 적은 일기장과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며 과학실에서 몰래 가져온 청산가리 시약병을 간직해야 했던 내 사춘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아니 언론과 사회가 배려와 격려를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붙여놓은 딱지를 하루종일 눈물콧물 흘리며 하나 하나 떼어내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던 내 삶, 내 육체가 있었다. 다행히 장한 어버이상이나 비장한 인간 승리를 요구하며 ‘장애’는 굴레이며 패배라고 외치는 교육에 부모님은 사회화 되지 않았으며 나의 장애보다 내 이름을 먼저 불러준 사람들도 넌 군대가지 않아서 좋겠다고 평평 울면서 부러워 해준 정말 용감하게 솔직했던 친구들이 종종 있었다.

내 애인이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 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없이 자신의 졸업식에, 가족 상견례에 초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법이나 금칙어가 아니다. 그 시선과 평가 자체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시스템과 문화이다. 무식한 국가가 모욕죄나 금칙어 등을 함부로 남발하여 되레 모욕의 효과만 높이는 것은 정말 ‘바보’이며 목발도 제대로 못 짚는 헛발질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높이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그들의 자부심을 강하게 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당신의 편견에 도전하라. 아니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도전할 것이다.
- 미국 드라마 스타트렉 엔터프라이즈 시즌 1기 4부 중에서」**

추신> 청춘들에게... 보물섬을 찾고자 떠나는 자만이 보물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대학 배움은 보물지도없는 보물섬 찾기다.

보물을 찾는 자 이미 보물섬을 보고 있다.

보물지도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보물을 찾아라 그러면 보물지도는 이미 손 안에 있다.

대학은 자신의 학문을 세우는 배움터이다. 학점을 따는 학원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답게, 자신만의, 학문과 배움을 세우라

세 번째, 글과 말은 거짓말이다(?) 몸과 손발로 배워라

사랑을 직접 해보지 않은 교사에게 학생들에게 진정 옳은 사랑을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가치관을 의심하라, 그리고 비판하라.

그리하여 현장으로 가라 친구들의, 아이들의, 교사들의, 우리 민중들의 현장으로 가서 그 속에서 배워라 마지막으로 자신이 깨지고 망가지고 바뀌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라 그것은 더할 나위없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네 번째, 하루를 1년처럼, 1년을 10년처럼, 영혼을 팔아도 새내기 때를 살 수 없다.

늦잠과 게으름에 시간을 버리지 마라. 과외와 연예와 학점에만 새내기를 바치지 마라

토론과 모임은 치열하게, 술자리와 활동은 최후까지!!

말라비틀어진 스폰지처럼 널려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모조리 흡수하라

[읽을거리]

예비특수교사가 궁금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장애인교육, 꿈틀 1기 참가자

1. 예비특수교사, 이것이 가장 궁금하다

-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 수행, 평가 등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통합교육은 유초중등 과정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 가족지원, 영유아특수학급 등 어떻게 운영되고 지원되는가?
-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 특수교사 갈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장애학생의 어떤 공격 행동이 있으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중등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 독립생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니 어느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2. 예비특수교사, 궁금한 것들

- 개별화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직 현장경험이 부족한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구체적으로 개별화 교육을 실행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구체적인 일,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것이 궁금합니다.
- 통합현장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어떻게 협력하여 수업을하시는지, 협력은 잘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학교현장에서 장애 학생 각각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별화 교육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
- 장애부모를 둔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및 생활 지원 방안
- 특정한 부분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장애학생 (예. 음악, 체육, 미술 등)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지도 방향
- 진짜 현재 교육현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개별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교육은 받고 있는지
- 특수학교에 봉사를 나가면 수업시간에 글씨를 읽을 줄 아는 학생이 있고 반면에 못 읽는 학생이 있는데 한 아이에게만 맞춰 가면 한 아이는 항상 그 자리일텐데 꼭 나이에 맞게 수업시간에 그 반을 맞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통합 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누리과정, 개별화교육

-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의 실제적인 주요업무와 순회교육에 대한 이야기
- 장애인 가족인 받을 수 있는 지원(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지원에 대한 효과)
- 영유아에게 해당되는 IFSP에서의 가족지원은 잘 이루어 지는지
- 특수교육지원센터
-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교육권 운영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나요?
- 실제로 개별화 교육을 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장애인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장애인가족지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다양한 지원들이 나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교에서 책으로 배운 교육지도 방법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 장애 아이들의 교육지도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지도 방법의 예시
- 장애인 가족 지원 방법
- 장애 학생들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부모 입장과 교사 입장)
-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에게 개별화 교육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와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간의 협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현장에 나가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 교사가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장애아를 둔 가정 내 보육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학교현장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당황스럽거나 힘든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점이 것이 있나요?
- 장애아동들을 개별화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현행수준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1년간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면서의 이점과 어려운 점을 알고 싶습니다.
- 학교현장에 실태에 대해 궁금합니다. ADHD학생은 어떻게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유특교사 지망생으로서 앞으로 어린 장애아동들이 확실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우리가 그들의 교육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즉, 미래 특수교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확실한지...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선별하는 것 초등학교입학 통지처럼 의무화 되지 않는 이유는 재정문제뿐인 것인가요?
- 장애인의 교육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되고,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통합교육 시 일반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특수유아들이 폭력성이 강하여 교사를 때릴 시 교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특수 교사보다는 특수 보조원이 많은 일들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학교 현장과 개별화교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실제 이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별화교육에 대한 경우 말은 아동에게 어떤 교육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장애 유아의 교육권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지원이 있는지, 있다면은 무엇에 대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아직 실습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예비 특수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워가고 싶으며 장애인 교육권을 지켜주고 여러 방법으로 장애학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
- 우리나라는 배치 이후 매 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다양한 학생들을 30일 이내에 파악하여 IEP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장실습에서 경험했을 때, 분명히 교사 측면에서는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학부모나 사회적으로는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추어지는 상황 속에서 교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는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적극적으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전공과 졸업 이후 장애학생의 교육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와 그 방법
- 통합학급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해교육 방안- 성범죄 및 노동 착취에 노출 되어있는 장애인 보호 방안
- 장애학생 행동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인들의 취업, 얼마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 비장애인은 등급이 없는데 같은 사람인데 왜 장애인에게는 등급이 주워지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학생 독립생활
-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들의 인권적인 부분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또한 그런 것들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 장애학생의 독립생활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나라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장애학생 독립생활
-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독립생활
-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후 얼마나 사회에 나가 일을 하나요?
- 장애학생들은 부모 및 그의 가족들이 평생을 양육하고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특수교사지인의 말로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졸업한 학생들은 특별한 일자리나 생활방안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 통학학급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이해하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육이 실제 비 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지원을 하고자할 때 교사 혼자서만 행동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이해교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장애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현 사회에 대한 인식 어느 정도로 자가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장애이해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이해교육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면서 어려운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통합환경에서 어떻게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